

『孟子』를 통해 본 ‘也’의 텍스트 기능*

박향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문말 ‘也’
 - 1) 전제
 - 2) 부연
 - 3) 추론
3. 문중 ‘也’
 - 1) 도입
 - 2) 접속
 - 3) 대비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고대 중국어에서 ‘也’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허사로 그 기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개별 문장 안에서 논의가 한정되었다. 본고는 『孟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선·후행 문장뿐만 아니라 단락 전체에서 ‘也’가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也’와 결합한 구문이 다른 명제와 갖는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텍스트를 응집하게 만드는 원리를 규명해보고 이 과정에서 접속사나 지시사와 같은 문법 요소와 공기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말에 출현하는 ‘也’는 전제, 부연, 추론의 텍스트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是’나 ‘此’, ‘故’ 등과 자주 공기된다. 문중에서는 ‘NP之VP구’, ‘其VP구’, 시간사, 복문의 종속절 뒤에서 출현하여 담화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4113)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초빙교수

주제를 제시하면서 도입, 접속, 대비의 텍스트 기능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孟子』, ‘也’, 텍스트 기능, 문말, 문중

1. 들어가는 말

고대 중국어에서 ‘也’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허사로 주로 문장의 끝에서 판단 어기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다.¹⁾ 하지만 다른 문말 어기사와 달리 NP-VP구, 其VP구, 시간사, 복문의 종속절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²⁾ 초기 학자들은 대개 ‘也’의 출현 위치를 문중과 문말로 구분하고 문말에서는 판단을 문중에서는 앞과 뒷 성분 사이에서 휴지(休止)를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³⁾ 이 밖에 일부 학자들은 문중과 문말의 위치 구분 없이 통합적 관점에서 ‘也’가 초점이나 대비와 같은 강조 어기를 갖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⁴⁾

그런데 지금까지 ‘也’의 기능 연구는 대부분 개별 문장 안에서 논의가 한정되었다. 이에 본고는 ‘也’가 선·후행 문장뿐만 아니라 단락 전체에서 텍스트 구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也’구문이 다른 명제와 갖는 의

1) 郭錫良(2005:53~81)에 따르면 ‘也’는 西周 金文, 『尙書』에는 보이지 않고 『詩經』, 『左傳』, 『論語』 및 戰國시기 이후의 문헌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고대 중국어 12개의 어기사 26603의 용례 중 16931개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2) 何樂士(2004:412~446)의 통계를 보면 『左傳』에 출현하는 3564개의 ‘也’의 용례 중 문말 서술어 뒤에 출현하는 용례가 2917개로 80%이상을 차지하며 문중 단어나 복문의 종속절 뒤의 용례는 645개로 18%를 차지한다.

3) 呂淑湘(1942), 王力(1980), 楊伯峻(1981), 何樂士(2004) 참조

4) 張文國(1999), 張小峰(2008), 王統尙·石毓智(2008) 참조

5) 텍스트(text)는 원래 ‘짜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동사 ‘texere’의 과거분사 ‘tex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직물’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1970년대 이후 언어학에 텍스트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언어 단위들도 하나의 조직이나 작품의 형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대개

미 관계를 파악하여 텍스트를 응집하게 만드는 원리를 규명해보고 이 과정에서 접속사나 지시사와 같은 문법 요소와 공기되는 양상에도 관심을 둔다.⁶⁾ 본고는 이를 위해 선진시기 대표 문헌인 『孟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孟子』는 화자의 주장이 강한 논증적 텍스트 유형으로 ‘也’의 텍스트 기능을 검토하는 데 적합하리라 판단된다.⁷⁾

2. 문말 ‘也’

고대 중국어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명사성 성분으로 구성된 ‘NP(者), NP也’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가 지시적으로 동일하거나 귀속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판단문의 전형으로 이때 문말에 출현하는 ‘也’는 주어에 대한 판단 어기를 도와준다고 본다. 그런데 ‘也’는 명사 서술어 뿐만 아니라 동사 서술어 뒤에도 출현한다.⁸⁾ 이를 판단문과 달리 설명문이나 해석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선행 문맥에서 가리키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나 설명으로 본 것이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모두 판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석문 혹은 설명문은 판단문 보다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단정, 확신, 강조의 양태 의미가 파생된다.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결속 관계를 갖는 문장들의 연쇄체로 정의된다. 넓은 의미에서 담화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담화는 언어 수행, 구어, 기술에 중점을 두고 텍스트는 언어 능력, 문어, 규범화에 좀 더 초점을 둔다. 정희자(1999:5~7) 참조

6) 명제(proposition)의 연결 관계는 명제들을 상위 명제 즉 텍스트 단락이나 텍스트 전체로 통합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접속사를 사용한 부가 관계, 인과 관계, 조건 관계, 결과 관계, 양보 관계, 목적 관계, 시간 관계, 양태 관계, 비교관계, 상반 관계 등이 있다. 백설자 역(2001:55) 참조

7) 『孟子』에 출현하는 어기사 1856개의 용례 중 ‘也’는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전체 1214개로 나타나 65%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이는 『左傳』이나 『論語』에 비해 높은 비율로 ‘也’의 쓰임이 활발하였다고 보여진다. 郭錫良(2005:80) 참조

8) 何樂士(2004:412~446)의 통계를 보면 『左傳』에서 문말의 ‘也’ 앞 성분이 명사인 경우가 40%, 동사인 경우가 50%, 형용사를 비롯한 기타 서술어가 10% 정도를 차지한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각각 좁은 의미의 판단문과 설명문으로 나누고 ‘也’의 텍스트 기능을 살펴보겠다.⁹⁾ 문말 ‘也’ 앞에 명사 서술어가 출현하는 지, 절이나 동사구와 같은 동사 서술어가 출현하는 지에 따라 이들 구조가 단락 안에서 나타나는 위치와 텍스트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다.

1) 전제

문말 ‘也’ 앞에 명사성 서술어가 출현하는 이른바 좁은 의미의 판단문은 주어의 항시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문장에 사용된다. 주로 텍스트 첫머리에 나타나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아 뒤에 전개될 논증 과정의 전제가 된다.

(1) 孟子曰：“規矩，方員之至也；聖人，人倫之至也。欲爲君盡君道，欲爲臣盡臣道，二者皆法堯舜而已矣。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不敬其君者也；不以堯之所以治民治民，賊其民者也。(離婁上 2)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規와 矩는 네모와 원의 지극한 것이고 성인은 인륜의 지극한 것이다. 군주가 되려면 군주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신하가 되려면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하니 둘은 모두 요와 순을 본받을 뿐이다. 순이 요를 섬기던 방법으로 군주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 군주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요가 백성을 다스리듯 백성을 다루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2) 孟子見齊宣王曰：“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

王無親臣矣，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也。(梁惠王下 7)

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을 뵈고 말했다. “이른바 오래된 나라는 큰 나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덕을 닦은 신하가 있음을 말합니다. 왕께서는 가까운 신하가 없습니다. 옛날에 등용한 자가 오

9) 『孟子』에서 문말에 출현하는 ‘也’ 중에서 절 성분의 목적어와 결합되어 보이는 ‘也’를 제외하고 본장에서 제시하는 텍스트 기능을 조사해보면 전제가 405개 예문이 부연이 277개 예문, 추론이 349개로 나타난다.

늘 도망간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문(1)은 ‘NP之VP구’가 명사성 서술어가 되는 판단문 구조로 화자는 ‘規’와 ‘矩’의 속성에 빗대어 ‘聖人’은 인륜의 지극함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후술 문장에서 성인인 요와 순이 임금과 신하로서 도리를 다한 예를 들어 텍스트 마지막에는 순이 요를 섬기듯이, 요가 백성을 다스리듯 해야 군주와 백성을 해치게 않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예문(2) 역시 담화 첫 단락에서 화자가 ‘故國’의 정의를 내리고 작금의 상황이 그와 같지 못함을 서술하였다. 이처럼 개념을 정의하는 명사 판단문은 주로 텍스트 서두에서 뒤의 논지를 전개하는 대전제로 쓰인다.

아래 예문은 ‘也’ 앞에 동사가 이미 명사성 성분으로 변하여 정의를 내리는 판단문 구조로 사용되었다.

(3)設爲庠序學校以教之:庠者, 養也; 校者, 教也; 序者, 射也。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有王者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詩』云 ‘周雖舊邦, 其命惟新’, 文王之謂也。子力行之, 亦以新子之。(滕文公上 3)

庠序學校를 세워 가르치니, 庠은 돌보는 것이요 校는 가르치는 것이요, 序는 활쏘는 것입니다. 夏왕조는 校라 하였고 殷왕조는 序라 하였고 周왕조는 庠이라 하였으니 學은 삼대가 함께 하여 모두 인륜을 밝히는 도구이다. 인륜이 위에서 밝으면 백성이 아래에서 친해집니다. 왕자가 나오면 반드시 와서 법도를 취할 것이니 이것은 왕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詩經』에서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명은 새롭다’ 하였으니 이는 문왕을 가리킨 것입니다. 당신께서 힘써 행하신다면 또한 그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문(3)을 보면 담화 서두에 고대 교육기관인 ‘庠’, ‘校’, ‘序’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들이 인륜을 밝히는 도구임을 설명한다. 후속 발화에서 인륜이 밝아지면 왕자가 일어나 법도를 취할 것이며 이로써 등나라도 왕자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설파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맹자는 『詩經』의 문장을 인용하여 문왕처럼 등나라 군주도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길 바라는 의도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孟子』의 텍스트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정의를 내리는 판단문의 구조가 서두에 위치하고 이어서 현재 혹은 과거 상황을 서술하는 기술문이 온다. 즉 화자는 텍스트 서두에서 청자에게 어떤 사물의 개념과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청자가 화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혹은 배경 근거로 삼는다. 기술문은 역사적 사실 혹은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서술하는 것으로 문말에 ‘也’가 출현하지 않거나 혹은 ‘矣’와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⁰⁾ 이를 통해 사건의 발생이 전제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바탕으로 화자의 논지를 전개해간다. 아래에서 같이 단락 마지막에 ‘也’가 동사성 서술어와 출현하는 해석문이나 설명문이 오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앞서 기술한 사건에 대한 화자의 해석과 발화 의도가 담겨있다.¹¹⁾

2) 부연

10) 馬建忠(1898)이 문말 어기사 ‘矣’와 ‘也’는 서로 상보적인 기능을 하는 본 이래로 呂淑湘(1942)은 ‘矣’는 과거 혹은 미래에 상관없이 모두 시간성을 내포하는 동태적인 사태에 쓰이고 ‘也’는 변화와 시간성이 없는 정태적인 사실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王力(1980)은 ‘也’는 시간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상황을 ‘矣’는 시간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과정에 쓰여 주로 과거의 일은 ‘矣’를 쓰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은 ‘也’를 쓴다고 보았다. 때문에 어떤 상황의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원인을 해석하거나, 추리하는 등 판단의 범주에 속하면 ‘也’를 쓰고 어떤 조건에서 상황이 변했음을 설명하거나 목전에 이미 어떤 상황으로 변하는 등 서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矣’를 쓴다.

11) 선진시기 문말의 ‘也’ 앞 성분인 서술어가 동사, 형용사, 절 등과 결합하는 것은 한국어 ‘-ㄴ 것이다’ 용법과 유사해 보인다. 이들은 ‘也’와 결합하여 사건을 개체화시켜 명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때문에 판단과 강조의 의미가 부각된다. 박나리(2012)는 명사화란 동적인 사태를 외부에서 하나의 동질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개념화시키는 매커니즘으로 외망적인 화자의 시점을 함의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에서 명사화된 ‘-는 것이다’ 구문을 설명하였다. 박소영(2001)은 ‘-은 것이다’구성은 앞 문장과 이유, 요약, 부연, 결과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장경현(2010)은 ‘-ㄴ 것이다’의 의미 기능이 선행 행위 설명, 선행 문장 부연 설명, 상황 해석, 원칙 설명, 담화 완결, 요약·인용 등으로 설명하였다. 정상철(2016)은 ‘-ㄴ 것이다’의 본질은 설명으로 인과관계, 환연관계, 강조설명의 하위 용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문말에 ‘也’ 앞 성분이 절이나 동사구와 같은 동사성 서술어가 출현하는 경우 문말에 명사성 서술어가 출현하여 단순히 개념을 정의하는 판단문과는 다른 텍스트 기능을 갖는다. 그 중에서 부연은 선행 발화의 의미에 대해 알기 쉽게 덧붙여 설명하는 것으로 선행 문장에 대한 상세화 혹은 재해석을 동반한다.

(4) “聖王不作，諸侯放恣，處士橫議，楊朱、墨翟之言盈天下。天下之言，不歸楊，則歸墨。①楊氏爲我，是無君也；墨氏兼愛，是無父也。無父無君，是禽獸也。公明儀曰：‘庖有肥肉，廄有肥馬，民有饑色，野有餓莩，②此率獸而食人也。’楊墨之道不息，孔子之道不著，③是邪說誣民，充塞仁義也。(滕文公下 9)

성왕이 나오지 않자 제후가 방자하여 초야의 선비들이 의론이 분분하여 양주와 목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하다. 천하의 말이 양주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목적에게 귀속된다. 양주는 자신만 위하니 이것은 군주가 없는 것이요, 목적은 똑같이 사랑하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는 것 이것은 짐승인 것이다. 公明儀가 ‘임금의 부엌엔 살 켜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 살쥔 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밭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있으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양주와 목적의 도가 끊어지지 않고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그릇된 이론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인과 의를 막히게 하는 것이다.

예문(4)를 보면 담화의 서두에 당시 목적의 검애설과 양주의 위아설이 세상에 횡행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였다. 예문(4-①)에서 그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 덧붙여진다. 즉 양주와 목적의 주장은 임금과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으로 이는 곧 짐승과 같은 것임을 부연 설명한다. 예문(4-②)와 (4-③)에서도 선행 문장은 사건의 발생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고 후행 문장은 그에 대한 화자의 해석이 담겨져 있다. 이때 ‘此’와 ‘是’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자주 동반하여 선행 문장과의 응집성을 강화한다.

(5) 孟子曰：“以力假仁者霸，霸必有大國，以德行仁者王，王不待大。湯以

七十裏，文王以百裏。①以力服人者，非心服也，力不贍也；以德服人者，中心悅而誠服也，②如七十子之服孔子也。『詩』云：‘自西自東，自南自北，無思不服。’③此之謂也。”(公孫丑上 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으로써 인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이며 패자는 반드시 대국을 가진다.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자는 왕자이니 왕자는 크기에 기대지 않는다. 탕임금은 칠십리의 땅을 사용하였고 문왕은 백리의 땅을 이용하였다.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한 것이요,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이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마치 칠십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詩經』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예문(5)는 담화의 서두에서 화자는 힘으로 정치하는 자는 패자이고 덕으로 정치하는 자는 왕자로 왕도 정치하는 나라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 예로 탕왕과 문왕을 제시하였다. 예문(5-①)에서 선행 발화의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힘이 아니라 덕으로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며 공자의 칠십 제자의 예시를 들어 부연 설명하였다. 마지막 예문(5-③)은 『詩經』에서 인용한 문장을 들어 논증을 마무리하였다. 이때 화자는 ‘此’를 사용하였는데 이런 지시대명사는 선행 문장과 공지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텍스트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강력한 응집성 장치이다. 이처럼 『孟子』에서는 ‘是’와 ‘此’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선행 문장의 내용을 재지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 문말에 ‘也’가 자주 출현한다.

아래 예문은 비록 명시적으로 선행 문장의 내용을 재지시하는 지시대명사 주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선행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부연 설명한다.

(6)孟子曰：“伯夷，目不視惡色，耳不聽惡聲。非其君不事，非其民不使。治則進，亂則退。①橫政之所出，橫民之所止，不忍居也。②思與鄉人處，如以朝衣朝冠坐於塗炭也。當紂之時，居北海之濱，以待天下之清也。故聞伯夷之風者，頑夫廉，懦夫有立志。(萬章下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伯夷는 눈으로 나쁜 광경을 보지 않으려 했고,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다. 자신의 입금이 아니면 삼키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백성이 아니면 다스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선정이 펼쳐질 때는 관직을 맡았고 혼돈의 시기에는 물러났다. 무법 통치가 발생하는 조정이나 무법의 백성들 사이에서 거처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골 사람과 함께 거처하기를 생각하길 마치 관복과 관모를 쓰고 진흙과 석탄 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紂의 시대에는 복해의 바닷가에 살면서 왕국이 정화되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백이의 품성을 들으면 부패한 자는 깨끗해지고 마음이 악한 자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예문(6) 전반부에서는 백이가 나라가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해지면 물러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술하였다. 예문(6-①)에서 그 이유로 백이가 무법적인 환경에서 거처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그 의미를 재해석한다. 예문(6-②)에서도 백이가 민간에 있을 때 행태를 예를 들어 선행 발화를 부연 설명한다. 이처럼 화자가 선행 문맥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기술하고 그 의미에 대해 재해석하는 경우에 문말에 ‘也’를 사용한다.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화자의 해석으로 확신이나 단정 의미가 드러난다.

3) 추론

문말에 ‘也’ 앞에 동사성 서술어가 출현하는 경우 텍스트 내에서 추론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추론은 명제 간에 인과나 이유, 조건 관계와 같은 다양한 의미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孟子』에서도 선행 발화에서는 원인이 되는 특정 사실이나 사건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문말에 출현하는 ‘也’와 공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7) 今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獨何與？然則一羽之不舉，爲不用力焉；興薪之不見，爲不用明焉，百姓之不見保，爲不用恩焉。故王之不王，不爲也，非不能也。(梁惠王上 7)

지금 은혜가 족히 짐승에게 미치지만 은혜가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그런즉 깃털 하나도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수레의 쇠를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을 쓰지 않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로 왕께서 왕노릇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8)王在靈囿，麀鹿攸伏，麀鹿濯濯，白鳥鶴鶴。王在靈沼，於物魚躍。文王以民力爲台爲沼。而民歡樂之，謂其台曰靈台，謂其沼曰靈沼，樂其有麀鹿魚鼈。古之人與民偕樂，故能樂也。(梁惠王上 2)
왕이 영소에 계시니 사슴들이 엎드려 있다. 사슴은 포동포동 살이 찢이고 백조들은 희고 굵다. 왕이 영소에 있으니 연못에 고기가 뛰어 놀았다. 문왕이 백성의 힘을 이용하여 대와 소를 만드니 백성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 대를 영대라 하고 그 소를 영소라고 하여 임금의 사슴과 고기와 자라를 소유함을 좋아하였다. 옛사람들은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겼기 때문에 고로 능히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문(7)은 담화 서두에서 현재 왕이 처한 상황을 기술하고 후행 문장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참이 되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마지막 문장에서 화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때 ‘故’는 추론에 의한 인과 관계임을 강조하는 표지이다. 이 역시 지시대명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단락 내에서 의미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문법적 장치이다. 예문(8)에서 맹자는 선행 문맥에서 문왕이 영소를 만들어 즐겼던 역사적인 고사를 기술하였고 담화 말미에서 문왕이 이같이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과 더불어 즐겼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짓는다. 이들은 모두 보편적인 진리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결론을 뒷받침한다. 역시 결론을 강조하는 접속부사 ‘故’가 출현하였다. 이 밖에도 ‘以’나 ‘則’과 같은 추론 의미를 갖는 다양한 어휘들과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접속부사는 따로 등장하지 않지만 명제 간의 조건 관계를 통해 추론이 성립된다.

(9)『書』曰：‘天降下民，作之君，作之師。惟曰其助上帝，寵之四方。有罪無罪，惟我在，天下曷敢有越厥志?’一人衡行於天下，武王恥之。此武王

之勇也。而武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今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民惟恐王之不好勇也。(梁惠王下 3)

『書經』에 ‘하늘이 백성을 내리고 군주를 만들어 주고 스승을 만들어 준 건은 오직 그가 상제를 도와 사망에서 특별히 총애해서이다. 죄가 없든 내가 있으니 천하가 어찌 감히 그 뜻을 지나치겠는 가?’하였습니다. 한사람이 천하에 횡횡하니 무왕이 그것을 부끄러워 하였으니 이것은 무왕의 용맹함입니다. 무왕이 또한 한번 노하여 천하의 백성을 편안케 했으니 지금 왕께서 또한 한번 격노하여 천하의 백성을 편안케 하면 백성들을 왕이 용맹함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예문(9)는 단락 서두에서 『書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무왕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마지막에 지금 왕께서도 무왕과 같이 한번 용맹하여 백성들을 편안케 한다면 백성들도 왕이 용맹하지 않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추론은 대개 텍스트 단락 내에서 논의가 정리되는 마지막에 오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전반부의 기술문은 전경 즉 배경이 되고 후반부의 추론 부분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자 강조하는 부분이 된다. 담화 마지막 부분이 화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점화 방식이다.

아래는 진술문이 아니라 의문문 끝에 등장하는 ‘也’로 추론 의미에 더해 화자의 감정이 강조되는 용법으로 볼 수 있다.

(10)曰：“庖有肥肉，廄有肥馬，民有饑色，野有餓殍，此率獸而食人也。獸相食，且人惡之。爲民父母，行政不免於率獸而食人。①惡在其爲民父母也？仲尼曰：‘始作俑者，其無後乎！’②爲其象人而用之也。③如之何其使斯民饑而死也？”(梁惠王上 4)

임금의 푸주간에는 기름진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포동한 말이 있으나 백성들은 굶주린 안색이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만든 것입니다. 짐승이 서로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사를 행하는 것이 짐승을 몰아 사람을 먹는 것을 면치못한다면 어찌 백성의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공자가 ‘처음으로 용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하셨으니 사람을 본떠 장례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굶

어 죽게 만듭니까?

예문(10)은 당시 백성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통해 왕이 정사를 행하는 것이 백성에게 제대로 미치지 못하므로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반어 어기의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견을 강하게 호소한다. 예문(10-②)는 보충 예시로 ‘爲’를 사용하여 선행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 예문(10-③)은 공자는 사람을 본떠 만든 생명이 없는 나무 인형을 만들어 장례에 부장하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하물며 살아 있는 백성을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은 군주의 도리가 아님을 설파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텍스트 내에서 문말에 명사성 서술어가 오는 판단문과 동사성 서술어가 오는 설명문이 함께 오는 경우 개념이나 정의가 대전제가 되므로 텍스트 전반부에 판단문이 온다. 설명문은 특정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연이나 추론으로 텍스트 후반부에 나타나는 경향이 크다. 또한 판단문은 담화의 전반부에 오는 경우 앞 명제와의 의미적 연결성이 낮다. 반면 주로 담화 후반부에 출현하는 설명문 혹은 해석문은 선행절에 대한 부연, 추론 등으로 텍스트 응집성이 높다. 또한 설명문은 주로 선행 문장이 존재하고 단락의 후반부에 나타나 선행절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됨으로써 강조, 확신과 같은 화자의 감정 어기가 더 드러난다.

3. 문중 ‘也’

‘也’는 문말 뿐만 아니라 ‘NP之VP’, ‘其VP’, 시간사, 복문의 종속절 뒤에도 자주 출현한다.¹²⁾ 기존에는 ‘也’가 이들 성분과 뒤에 위치하는 서술어나 주절

12) 何樂士(2005:445)에 따르면 『左傳』에서 문중에 출현하는 ‘也’는 복문의 종속절 뒤에 오는 경우가 36%, ‘NP之VP’ 뒤는 28%, ‘其VP’ 뒤는 12%를 차지한다. 이외에 주어 뒤에도 10%의 비율로 출현한다. 주어는 주로 人名이나 한정성을 갖는 보통명사 뒤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뒤의 서술어가 가리키는 동작의 행위자 주체로 주술구조를 가지

사이에서 휴지(休止) 혹은 정돈(停頓)을 나타낸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다른 화용 의도를 주장하는 견해가 생겨났다. 예컨대 이들 문두 성분이 화제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아 ‘也’를 화제 표지로 보는 견해가 생겨났다. 허성도(2007)는 화제는 ‘대하여 성(aboutness)’의 특성을 가지며 문중에 나타나는 ‘也’는 화제 뒤에서 그것에 대해 판단해 본다는 어기를 갖는다고 보았다. 張小峰(2008)은 ‘也’는 문중에서 대비를 나타내는 화제표지로 모두 청자나 독자에게 특별히 주의할 부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王統尚·石毓智(2008) 역시 문중에서 ‘也’의 기본 기능은 초점 혹은 대비 기능으로 보았다. 劉丹青(2016)도 고대 중국어의 ‘者’와 ‘也’는 모두 화제 표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¹³⁾

하지만 이들은 주로 개별 문장 내에서 화제의 요건이나 화제의 신·구 정보성에 치중하였다. 본고는 보다 넓은 담화 단락에서 담화 주제로 기능하는 문중 ‘也’의 텍스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⁴⁾

1) 도입

문중 ‘也’는 텍스트 서두에서 전체 담화 주제를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 담화의 서두에 나타나 중심 주제의 방향을 확정하고 후행 문장에서는 그 담화 주제에 따라 논지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11)梁惠王曰：“寡人之於國也，盡心焉耳矣。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移其粟於河內。河東凶亦然。察鄰國之政，無如寡人之用心者。鄰

며 단락 내에서 텍스트 기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문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3) 『孟子』에서 문중에 출현하는 ‘也’의 텍스트 기능을 살펴보면 주로 담화 서두에서 도입이 69개로 많은 수를 차지하며 접속이 28개의 용례, 대비가 15개의 용례를 보인다.

14) 정희자(1999:55)는 화제 즉 주제를 문장 주제(sentence topic)와 담화 주제(discourse topic)로 분류하였다. 문장 주제는 한 문장 내에서 주제 가능 요소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요소가 나타내는 실체에 부여한 기능인 반면 담화 주제는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큰 단위를 지배한다.

國之民不加少，寡人之民不加多，何也？”（梁惠王上 3）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은 나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하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은 하동으로 옮기고 그 곡식은 하내로 옮깁니다.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자가 없습니다. 이웃의 백성이 적어지지 않고 과인의 백성이 많아지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예문(11)은 텍스트 서두에 담화 주제문이 오는 경우로 양혜왕 자신이 나라에 대해서 진심임을 밝히고 나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었다. ‘也’는 병렬 혹은 대비되는 화제 뒤에도 자주 출현하는데 논지의 완정성을 위해 둘 이상의 화제가 대구되어 원칙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들 역시 텍스트의 서두에 나타나 새롭게 담화 주제로 도입하는 기능을 갖는다.

(12)孟子曰：“是焉得爲大丈夫乎？子未學禮乎？丈夫之冠也，父命之；女子之嫁也，母命之，往送之門，戒之曰：‘往之女家，必敬必戒，無違夫子！’以順爲正者，妾婦之道也。”（滕文公下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어찌 대장부라고 하겠는가? 그대는 예를 배우지 못했는가? 남자가 장가갈 때는 아버지가 훈계하고 여자가 시집갈 때는 어머니가 명하니 문에서 전송할 적에 경계하여 ‘네 집에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경계하여 남편을 거스리지 말라!’고 하니 순종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인 것이다.

(13)孟子曰：“三代之得天下也以仁，其失天下也以不仁。國之所以廢興存亡者亦然。天子不仁，不保四海；諸侯不仁，不保社稷；卿大夫不仁，不保宗廟；士庶人不仁，不保四體。今惡死亡而樂不仁，是猶惡醉而強酒。”（離婁上 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하, 상, 주 삼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애로워서이고 천하를 잃은 것은 인애롭지 못해서이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 천자가 인애롭지 못하면 사해를 보호하지 못하고 제후가 인애롭지 못하면 사직을 보호하지 못한다. 경대부가 인애롭지 못하면 종묘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서인이 인애롭지 못하면 몸을 보전하지 못한다. 지금 죽고 망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인애롭지 못한 것을 좋아하니 이는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술을 억지로 마시는 것과 같다.”

예문(12)를 보면 남녀의 혼인에 갖춰야 할 예를 문두에 대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남자와 여자의 혼례를 모두 언급함으로써 논리의 완성성을 갖춘다. 후행 발화는 이를 원칙으로 논리가 전개된다. 예문(13)은 하·은·주 세 왕조가 천하를 얻고 또한 잃은 이유에 대해 대비적으로 제시하였고 후속 발화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통용되는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담화 주제로 제시하였다.

2) 접속

접속은 담화 단락의 중간에서 선행 발화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담화 주제가 연결되는 것으로 대개 한정적 성분과 결합하여 텍스트의 응집성을 갖는다.

(14)孟子之平陸。謂其大夫曰：“子之持戟之士，一日而三失伍，則去之否乎？”曰：“不待三。”“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凶年饑歲，子之民，老羸轉於溝壑，壯者散而之四方者，幾千人矣。”（公孫丑下 4）
 맹자가 평육에 가서 그 대부에게 일러 말하길 “그대의 창을 잡은 전사가 하루에 세 번이나 대오를 이탈한다면 없애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니 말하길 “세 번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군대를 잃어버리는 것 또한 많을 것입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든 해에 그대의 백성 중에 노약자들은 전전하다가 죽어 구렁에 버려지고, 장성한 자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가는 자가 몇천 명이 될 것입니다.”

예문(14)에서 맹자는 선행 담화를 근거로 추론한 내용을 명사화 과정을 거쳐 담화 주제로 연결하고 후행 발화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런 담화 주제는 대개 청자에게 익숙한 대상인 한정성이 강한 성분과 결합되며 위에서는 담화 상황에서 직시되는 ‘子’가 나타난다.

아래 역시 선행 발화에서 물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고 후행 발화에서 그것을 이어서 담화 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후행 문장의 결론을

도출하고 마무리한다.

(15)孟子曰：“原泉混混，不舍晝夜。盈科而后進，放乎四海，有本者如是，是之取爾。苟爲無本，七八月之閑雨集，溝澮皆盈；其涸也，可立而待也。故聲聞過情，君子耻之。”(離婁下 1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원천을 가진 샘물이 쏟아져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른다. 패인 웅덩이들을 다 채우고 나서 나아가 사해까지 다다른다. 뿌리가 있는 것은 이와 같으니, 공자께서는 이 점을 높이 산 것이다. 만약 원천이 없으면 칠팔월 사이에 빗물이 모여 크고 작은 도랑들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말라버리는 것은 서서 기다릴 수 있다. 고로 군자는 명성이 사실보다 지나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예문(15)에서 단락 중간에서 ‘也’가 출현하였는데 선행문의 내용과 연결하여 접속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때 ‘其’라는 한정 지시사를 통해 선행 문맥과의 응집성을 높였다. 아래 예문(16) 역시 ‘也’는 선행 발화와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주제 뒤에 제시되었다.

(16)孟子曰：“桀紂之失天下也，失其民也；失其民者，失其心也。得天下有道：得其民，斯得天下矣；得其民有道：得其心，斯得民矣；得其心有道：所欲与之聚之，所惡勿施爾也。民之歸仁也，猶水之就下、獸之走壙也。(離婁上,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길, 주가 천하를 잃어버린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니 백성을 잃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잃는 것이다. 천하를 얻음에 길이 있으니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것은 길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마음을 얻는데는 길이 있으니 원하는 바를 주어서 모이게 하고 싫어하는 바는 베풀지 않는다. 백성이 인자에게 돌아감이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짐승이 들로 달아나는 것과 같다.

3) 대비

‘也’는 문두의 시간사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 뒤에도 출현한다. 특히 시간사와 결합한 ‘今也’가 자주 쓰이는데 선행 발화에서 과거 상황과 대비되

먼저 현재 시점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17)陳相見許行而大悅，盡棄其學而學焉。陳相見孟子，道許行之言曰：“滕君，則誠賢君也；雖然，未聞道也。賢者與民並耕而食，饗飧而治。今也滕有倉廩府庫，則是厲民而以自養也，惡得賢？”(滕文公上 4)
진상이 허행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동안 배운 것을 다 버리고 그에게 배웠다. 진상이 맹자를 보고 허행의 말을 전했다. “등나라의 군주는 진실로 현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도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자는 백성들과 함께 밭갈고 먹으며 밥을 짓고서 다스립니다. 지금은 등나라가 창고가 있으나 이것은 백성을 해쳐서 자신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8)滕定公薨。世子謂然友曰：“昔者孟子嘗與我言於宋，於心終不忘。今也不幸至於大故，吾欲使子問於孟子，然後行事。”(滕文公上 2)
등나라 정공이 죽었다. 세자가 연우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맹자께서 일찍이 나와 송나라에서 나눈 말이 마음에서 끝내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은 불행히 큰일을 당하니 나는 그대가 맹자에게 물어 본 후에 일을 행하고자 하노라.

예문(17)을 보면 선행 발화에서 과거에 현자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다스렸음을 기술하고 있고 후행 발화에서는 지금 등나라 임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문(18)에서는 선행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昔者’를 사용하여 현재와 대비를 시키고 전체 담화 배경을 과거에서 현재로 옮긴다. 즉 과거 시점의 사건이 먼저 기술되고 후행 문장에서 ‘今也’를 통해 현재 시점으로 전환된다.

이는 ‘也’가 출현하지 않는 ‘今’의 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今也’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라는 보다 넓은 범위의 시간을 의미한다면 ‘今’은 바로 지금처럼 눈앞에 사건이 펼쳐지는 시점만을 기술한다. 즉 과거와 어떤 연계점을 찾을 수 없고 단순히 화자의 주의를 이끄는 현재의 순간만을 얘기한다.¹⁵⁾

15) Pullyblank(2005:272)는 ‘今’은 영어의 ‘now’처럼 종종 특정한 시간 참조가 없는 약한 유도조사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보았다.

(19)王曰“‘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如? 今有璞玉於此，雖萬鎰，必使玉人雕琢之。至於治國家，則曰‘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以異於教玉人雕琢玉哉?” (梁惠王下 16)

왕이 말했다. “‘잠시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옥이 있는데 비록 만일이라고 반드시 옥인에게 시켜서 쪼아야 합니다.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도 ‘잠시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어찌 옥인에게 옥을 조탁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아래 예문에서 ‘也’는 동사구 형식이지만 시간절의 의미를 갖는 종속절 뒤에 쓰인다. 텍스트 전반부에서 이전 시기의 상황이 기술되고 후반부에서 화자의 발화 시점으로 전환되면서 청자 혹은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20)孟子謂齊宣王曰：“王之臣有托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比其反也，則凍餒其妻子，則如之何?” 王曰：“棄之。” (梁惠王下 13)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일러 말했다. “왕의 신하 중에 그 처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놀러 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 왔을 때에 그 처자가 얼고 굶주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버려야 합니다.”

4. 나오는 말

본고는 문중과 문말에 놓이는 ‘也’의 텍스트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말에 출현하는 ‘也’는 주로 판단문이나 설명문에 나타난다. 판단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명사성 성분으로 동격이나 귀속 관계를 나타내며 주어가 갖는 항시적인 속성을 정의한다. 이런 정의나 개념은 텍스트의 서두에 오는 경우가 많고 전체 논지 전개나 원칙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동사성 구가 문말에 나타나는 설명문 구조는 주로 텍스트 후반에서 선행 발화에 대한 재해석과 관련되어 부연 설명 혹은 인과나 조건, 이유 등 추론의 의미 관계를 구성한다.

특히 부연은 선행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선행 문맥에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기술하면 후행 문장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 상세화한다. 이때 ‘此’, ‘是’와 같은 지시대명사와 공기하여 선행 문장과 의미적 결속을 강화하기도 한다. 맹자는 자주 『詩經』과 『書經』의 문장을 인용하여 논거를 보충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연은 상세히 설명하거나 예시를 사용한다. 추론은 명제 간의 인과나 조건, 이유 등의 의미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주로 텍스트 후반부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故’나 이유나 조건을 나타내는 ‘爲’, ‘以’, ‘則’ 등과 공기되어 응집성을 강화한다.

문중에 출현하는 ‘也’는 NP之VP, 其VP, 시간사, 복문의 종속절 뒤에도 나타난다. 이때 텍스트 단락의 서두에서 새롭게 담화 주제를 도입하여 담화 방향을 설정하고 후행 발화의 배경이 된다. 혹은 논리의 완정성을 갖는 대구되는 구나 절을 화제로 제시하여 원칙으로 삼기도 한다. 접속의 기능은 담화의 중간에서 대개 앞선 명제를 기반으로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화제를 제시하여 후행 문장의 전개를 돕는다. 때문에 대개 한정성 성분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也’가 ‘今’과 같은 시간사나 시간 의미의 종속절 뒤에 오는 경우는 과거 시점에서 발화 시점으로 화제를 대비 혹은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參考文獻

- 김도연, 「‘-(으)ㄴ/는 것이다’의 의미 기능과 실현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9권 제3호, 2022.
- 박나리, 「‘-는 것이다’구문 연구: 문법기능과 담화기능 그리고 화자의 담화전략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학』 65, 2012.
- 박소영, 「‘-ㄴ/는 것이다’구성의 텍스트 분석」, 『한국 텍스트과학의 제 과제』 서울: 역락, 2001.
- 안기섭, 「古代漢語 조사 ‘也’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국언어과학』 60집, 2014.
- 장경현,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서울:역락, 2010.
- 정상철, 「-는 것이다>의 텍스트 기능과 의미」, 『텍스트언어학』 41, 2016.
- 정희자, 『담화와 문법』, 서울: 역락, 1999.
- 허성도, 「古代漢語 語氣詞 ‘也’의 기능에 대하여」, 『중국문학』 50집, 2007.
- 郭錫良, 「先秦語氣詞新探」, 『漢語史論集』, 北京:商務印書館, 1997.
- 何樂士, 「〈左傳〉의 語氣詞」, 『〈左傳〉虛詞研究』, 北京:商務印書館, 2004.
-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呂叔湘文集』 第一卷, 北京:商務印書館, 1942.
- 劉丹青, 「先秦漢語的話題標記和主語-話題之別」, 『古漢語研究』 第2期, 2016.
- 李佐豐, 『古代漢語語法學』, 北京:商務印書館, 2004.
-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商務印書館, 1898/2004.
- 王統尚·石毓智, 「先秦漢語的判斷標記“也”及其功擴展」, 『語言研究』 第4期, 2008.
- 王力, 『漢語史稿』, 北京:中華書局, 1980.
- 王力, 『漢語語法史』, 北京:商務印書館, 1989.
- 王力, 『古代漢語』, 北京:中華書局, 1962.
- 楊伯峻, 『古漢語虛詞』, 北京:中華書局, 1981.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修訂本)』, 北京:語文出版社, 2001.
- 張文國, 「『左傳』“也”字研究」, 『古漢語研究』 第2期, 1999.
- 張小峰, 「先秦漢語語氣詞“也”的語用功能分析」, 『古漢語研究』 第1期, 2008.
- Edwin Pulleyblank,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95, 양세욱 역: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서울:궁리, 2005.

Heineann, Wolfgang, Dieter Viehweger, Textliguistik, Tübingen: Niemeyer, 1991, 백설자 역: 『텍스트언어학 입문』, 서울:역락출판사, 2001.

Abstract

The Textual Function of ‘ye’ in Mencius

Park, Hyang Lan

Until now, most studies on the function of ‘也’ appearing at the end and middle of sentences in pre-qin period have been limited to discussions within individual sentences. This study analyzed ‘Mencius’ and examined how ‘也’ contribut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text, not only in the preceding and following sentences, but also in the entire paragraph. In particular,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elucidating the principles that cohesively form a text by identifying its semantic relationships with other propositions. As a result, ‘也’ at the end of a sentence performed text functions such as proposition, expatiation, and inference, and at the middle of sentences performed text functions such as introduction, connection, and contrast.

Key words: mencius, 也(ye), text function, Cohesion, sentence medial, sentence final

투 고 일 : 2025. 1. 10. / 심 사 일 : 2025. 1. 15.~ 2025. 2. 15. / 게재확정일 : 2025. 2. 20.
--